



30년 중창불사가 완성된 최근의 직지사 전경.



1970년대 불사초기 직지사. 신축한 청동로등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직지사 30년 중창불사 회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가 30년간의 가람 중창불사를 마치고 다채로운 회향행사를 갖는다.

지난 66년에서 71년까지의 청동로 신축에서 지난해말 사찰주변정리까지 직지사는 30년간 건물신축 34개동 등 총 54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주지 녹원스님 인터뷰 7면>

직지사의 중창불사 회향은 중부권 포교의 극대화와 국내

학연 연구 법패시연 등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중계할 계획이다.

▲중창불사 사진전시회: 9월 25일부터 10월19일까지 만세루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중창불사 과정을 담은 사진과 성보박물관 소장품 등이 소개된다. 직지사 경내를 안내하는 기념자료집도 이 기간동안 배포된다.

▲민동발탈사: 만덕전앞에 만

책자가 배포된다.

▲기념세미나: '신라불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17일 오후2시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동국대 권기중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초전불교의 제문제'(김상현 교원대학교수) '신라고승들의 사상과 시대적 역할'(정병조 동국대학교수) '신라 삼국통일과 오늘의 부단현실'(민병천 동국대전통장) 등이 주제발표된다. 토론에는 증법스님(중앙

인이 출연한다.

▲외국불교대표자 초청: 중창불사 회향을 계기로 국제불교회관 등을 소개하기 위해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지에서 불교 지도자를 초청 회향법회의의 의의를 더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구화산 기원사 방장 인덕스님과 중국불학원의 연기법사 등이 일본에서는 정토종 정종 나카무라 교류스님 대장대 미

시미젠노스님 등이 스리랑카에서는 아람파라종 정종 마리에 파나시하스님 담마비리리 대승정 인도대각회 총재 위룰라짜라 대승정 등이 초청된다. 초청기간은 17일~20일이며 기간중 회향법회오식상식 조계종 총무원예방 동국대학교 예방등의 일정이 계획됐다.

임연태 기자

지수심 대전수등 4명

진각종, 스승 정년퇴임

진각종(총리원장 탁해)은 지난날 25일 대구 크리스탈호텔에서 스승정년퇴임식을 봉행했다. 전국 각 심인당 주교를 비롯 1백50여명의 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총리원장 탁해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단발전을 위해 그동안 피땀어린 노력으로 진각종이 반석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한 스승은 지수심 대전수, 정심화 대전수, 수덕사 대전수, 일현정사 등 총 4명이다.

광수사 낙성식 봉행

천태종, 1천2백평 규모

대한불교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문덕스님)는 지난날 27일 오전 10시 낙성식 및 삼존불 천오십삼불 봉안식을 중흥 도용스님을 비롯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했다.

대전 개산동에 건립된 광수사는 지난 93년 착공, 총면적 2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3층 삼존불 및 천오십삼불이 모셔지고 지하와 1, 2층에는 식당 및 기도실을 갖춘 다목적 불교회관으로 건립됐다.

방송가 소식

종하스님 월말까지 사장직대

BBS 이사회 결의

0...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이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인 사장직무대행직을 겸직한다.

불교방송은 지난날 22일 19명의 이사중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19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장직무대행직과 관련된 강민필 사장직대직을 해임하고 종하이사장이 사장직무를 맡아 3인의 직인(이정김재진 이태호국장을 인사조직하고 방송국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10월말까지 사장직무대행을 겸직토록 했다.

정동호씨 추천 존중

0... 지난날 22일 진흥원 이사회에서 불교방송 사장후보로 추천한 정동호의원(무소속·함안 의령)은 '추후 진흥원에서 보내는 정동호이사장 추천공문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조계종 불교방송

특위는 지난날 26일 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정상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판단, 이제까지 인사문제에만 매달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불교방송의 경영 등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지난날 26일부로 조계종 스님들의 불교방송 협찬, 출연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기일내 정상화 시킬터"

0... 한편 사장직무대행 종하스님은 지난날 23일과 26일 종훈스님과 안영수차장을 총무국장과 총무국차장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첫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어 27일 불교방송 15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업무추진을 위한 외부인사영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어진 기일을 엄수하여 이사회 결의대로 방송발전 저해 정본인들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천명했으나 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외프로 제작지원

btv, 씨에프랑스와 계약

불교텔레비전의 제작인력은 총 1백명이며 이중 임시직이 34%에 이르고 정비부부분도 케이블TV 공급업체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25일 7층회의실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현황을 밝혔다.

불교텔레비전은 앞으로의 동향과 관련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씨에프랑스와 해외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불교신영단체를 중심으로 불교TV알리기 운동을 10월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자원봉사단을 10월중에

발대하여 운영하고 가족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찬란한 여명'

14일로 방송연기

개화사 이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KBS-1TV '찬란한 여명'이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촬영장이 악화돼 첫방송이 지난 30일에서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가수 장필순 콘서트

불교방송의 '밤의 참가에서'를 진행하고 있는 장필순씨가 2일부터 이날 16일까지 마당세 실극장에서 4집앨범 발표를 겸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나를 찾아서' '하루' 등 새노래가 선보이고 있다.

성보박물관 개관·세미나·음악회등 다채 만덕전등 34개동 신축 국제포교 기틀다져

의 불교 연구장의 활용을 통한 국제포교의 기틀마련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행사외 5건의 기념행사 특별계획도 직지사 중창불사 회향행사 일정은 이미 지난해 25일부터 시작됐다. 다음은 각 행사내용과 일정.

▲회향법회: 10월19일 오전 11시 만덕전앞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다. 육법공양과 국악관

동합을 세워 15일부터 1주간 등을 밝힌다. 2만2천명의 불자가 등을 밝힐 수 있으며 회향행사 동참금 1만원을 접수하면 등갑을 접할 수 있다. 답은 황룡사 9층탑을 모형으로 했다.

▲성보박물관개관: 17일 오후 1시에 개관행사를 갖는다. 박물관에는 국보 208호 금동육각 사리탑 등 국보·보물등 국보급 문화재와 중창불사중 발굴된 문화재 등이 전시된다. 개관식에서는 직지사 성보안내

고 말했다. 김국장은 "통합논의는 발행인(소유) 편집인(경영) 관리 편집인(보도)의 삼면본질이 최소한 확보되었을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방속에 토론자들은 대부분 '교계언론통합은 아직

승가대교수) 신중훈(강원대학교수) 목정배(동국대학교수) 윤이홍(서울대학교수) 서운길(동국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산사의 환경유역: 잔디광장에서 15일 오후3시에 열린다. 경북도내 불자지역지도장 등 지역불자들을 대거 초청해 열리는 이 음악회는 국토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자리로 기획됐다. 녹색지대, 정수라, 신영희, 박영미, 이은수, 온새미로 등의 인기가수와 국악

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교계언론의 통합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열악한 교계언론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편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과 담위간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불교언론의 통합논의가 불교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탈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일이다.

이준영 기자

종교법인법 개정

일정계 '갑론을박'

일본에서 '올 진리교' 사건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종교법인법 개정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민당이 "현행 종교법인법은 어떤 종교단체든 기본적인 등록이 되고 사후실태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 올 진리교같은 사비비 종교가 창궐하고 있다"며 법개정의 의사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이에대해 야당과 종교단체들은 "종교법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강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의 정치쟁점화는 신당당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가학회의 득을 목욕히 받았던 것과 관련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참가학회' 합종연횡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측도 많다.

"불행없는 세계일화"

달라이라마 인터넷 송고

미국의 불교잡지 트리사이클



(TRICYCLE)이 '당신이 불교에 귀했다는 것이 삶에 주는 의미는...'이란 주제의 설문은 인터넷에 올려 세계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신념과 신행 의지를 파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잡지의 질문에 대해 마하고사나다스님(캄보디아)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먹으려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붓다는 이 고통을 불멸의 눈물로 흘린다"고 답했다. 또 달라이라마는 "살아있는 존재가 남아 있는 동안 그때까지 나는 세계의 불행함을 없애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해 그의 평화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5·18문제와 관련해 교계 전체가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여러종절해 하고 있던 차

였다. 18일 이웃 천주교는 14개 전교구가 서명운동을 벌여 12만4천여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까지도 교계는 8월 조계종 중앙총회와 실천승가회가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단 한 번의 기자회견과 몇몇 단체의 성명 발표만이 있었을 뿐이다.

연대가 어려워 쉽게 일을 벌려 놓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18참정자 처벌등에 관한 문제로 지금 전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말할것도 없이 모든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항거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를 되찾자는 것이다. 불교도 이 역사속에 살아왔고 앞으로 이 역사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종단의 무관심은 처치하고라도 대외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할 재야단체들이 이렇듯 조용한 자세로

야 할 일이다.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성명서 한 번 냈다고 해서 이 문제의 주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광우에 사는 한 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저히 참피해서 죽겠어요. 개신교나 천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불교는 아무 말도 없어요. 거짓말도 하는 행사에 끼어들거나 하는 정도... 불교는 원래 이런데 관심이 없나보죠?"

뒷집진 재야단체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다. 실천승가회는 회원스님의 70% 이상이 총회위원과 주지소임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불련도 막상 일을 하려 고 하니 교계 시민단체들간의

한명우 기자

교계언론 통합론

이에대해 김중찬국장(불교신문)은 "언론통합은 원천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다"고 전제하고 "언론이 무소불능의 힘을 얻게 되었을때는 보도내용의 신뢰성, 언론인의 사명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이날 토론에서는 일단 반대론의 우세로 끝났다.

교계 언론통합은 이미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거론되었 다. 불교텔레비전 출범이후에는 몰입에서 활발하게 논의되

목탁소리

이준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기념

4대 방장 큰스님 친견법회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정법포교의 일환으로 수미산 여행사와 협찬, 4대 총림을 순례하며 방장 큰스님의 사자후를 듣는 특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사오니 이번 특별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명에서 벗어나는 복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1회 : 1995년 10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 월하 방장 큰스님**
- 2회 : 1995년 10월 28일 **해인총림 해인사 해암 방장 큰스님**
- 3회 : 1995년 11월 4일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 방장 큰스님**
- 4회 : 1995년 11월 18일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 큰스님**

출발일시: 매회마다 오전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출발 ※ 최신형 전세버스 다량 보유

동참회비: 1인당 2만원(매회 출발 4일 전까지 제일은행 131-10-000570 수미산여행사로 입금후 예약)

동참인원: 매회마다 선착순 150명 마감

예약전화: (02) 732-0181~3 ●담담:조미경 대리·정미순

불교성지순례전문 수미산 여행사

국외여행업 등록 제 358호
국내여행업 등록 제 21-3호

수련원 양도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수가 완벽함. 대형베스가 마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수련원 및 노후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현재 신도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고시생을 위한 방 2개와 일반 수양객을 위한 최신 현대시설을 갖춘 17개의 방과 주지실 20평을 제외한 식당 및 일반불자를 위한 80평과 법당 130평의 건축물이 있음.

자세한 내력

- 부 지 : 1만평
- 건축물 : 법당 → 130평
- 식당간 → 80평
- 요사 → 140평
- 방 → 50개

● 참고 : 부동산 중개인 불필요
 소요 당사자 연락바람

연락처 : (02) 233-2500